Rising Sacheon 친절한 시정 활기찬 경제

사천시보

발 행 처 : 사천시 발 행 인 : 사천시장
(664-701)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덕곡리 501번지)
2012년 12월 1일(토) 제200호

http://www.sacheon.go.kr 전화 : (055)831-2215 · FAX : (055)831-6011 E-Mail : shgongbo@korea.kr [1996년 1월 25일 창간]

2013년 해맞이는 삼천포대교에서…

희망찬 새해 아침은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길' 위에서 만나요

삼천포대교에서 바라본 일출 광경

사천시에서는 2013년 1월 1일 오전 6시부터 삼천포대교에서 새해의 소망과 안녕을 기원하는 '2013 삼천포대교 해맞이 축제'를 실시한다.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전국 9대 노을 명소'이자 한려수도의 중심지인 삼천포대교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서 '대상'으로 선정될 만큼 전국에서도 유명한 곳이다.

사천시 해맞이 행사는 벌용동 풍물패 소리누리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사천문화원 전통예술단의 모듬북 공연과 동서동 대방굴항 앞 신 방파제에서 신년 축포를 쏘아 올려, 시민과 관광객이 한데 어울려 아름다운 불꽃놀이를 감상하게 된다.

이어 '희망의 북' 타고(打鼓)와 '만세삼창', '소망 연 날리기', '다리밟이'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농협중앙회 사천시지부에서는 시민들에게 무릎담요를 제공하여 한겨울의 추위를 녹이고, BAT 코리아사와 사천시 새마을회에서 합동으로 떡국을 무료로 나눠준다. 또 사천여성 의용소방대와 대방동 큰고을 굴항회에서는 해맞이 관광객에 따뜻한 차를 제공하여 사천시민의 훈훈한 정을 전해 줄 것이다.

시 관계자는 "사천시 삼천포항은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한려수도의 중심지와 자연산 활어회의 집산지로, 동해안이나 서해안의 해돋이·해넘이보다 관광객에게 색다른 맛과 멋, 볼거리를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문의는 사천시청 총무과(☎055-831-2565)로 하면 된다.

TIP : 여행정보

사천시는 서울에서 시외버스(서초동 남부터미널)로 4시간, 대전에서는 2시간이 소요된다. 이용도로는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차량정체가 없이 상쾌한 기분으로 예정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다.

지난 2003년 4월 28일 개통한 창선·삼천포대교는 사천 대방과 남해 창선을 연결하는 연육교로 총연장 3.4㎞에 달한다.

삼천포대교, 초양교, 늑도교, 창선대교 등 제각기 다른 공법으로 시공된 교량은 특산물의 원활한 유통은 물론 한려해상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아우러져 사천지역의 명물로 각광 받고 있다. 특히 야간 경관조명은 푸른 바다와 빛이 멋들어진 조화를 이뤄 관광객들에게 인기다.

☞ **가는 방법** : 대전~통영고속도로→남해고속도로→사천IC→사천읍→삼천포대교

飛翔 사천, 제52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

힘찬 행보, 성공 예감, 도약 예약

삼천포공설운동장 조감도

The 52nd Gyeongnam Sports Festival
제52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

2013. 4.26~29일

내년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제52회 경남도민체육대회'를 앞둔 사천시가 '도민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힘찬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천시는 이번 도민체전을 통해 '문화관광과 경제체전'과 340만 도민의 화합으로 세계속의 경남을 만드는 '화합 감동의 체전'을 위해 각 분야별 임무를 꼼꼼히 체크하는 등 성공개최를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

특히 시는 내년 도민체전 개최를 통해 경남의 중심지역으로 도약하고 이후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통해 청정자연환경에 어울리는 체육활동의 메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추진기획단 구성… 준비 '만전'
숙박시설 확보 상징물 확정 등

사천시는 이번 축제를 시민주도형 축제, 수익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수익형 축제, 관광체험 사천의 도시브랜드를 반영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에 시는 지난 4월 19일 경상남도체육회 이사회에서 2013년 경남도민체육대회 사천시 개최가 확정됨에 따라 분야별 6부 24팀으로 이루어진 추진기획단을 구성, 행사준비를 위한 종합상황실을 별도 운영해 오고 있다. 추진기획단은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빈틈없는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준비사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주경기장 리모델링 및 시설 보완 사업을 비롯해 숙박문제 해결을 위한 전수 조사를 벌이는 등 참가 선수와 외지 관광객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개·폐회식과 각종 경기가 진행될 삼천포공설운동장과 사천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 하여 이달 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도전용체육관과 테니스장, 농구장, 족구장, 주차장 및 부대시설 등 주변 체육시설 조성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각 시군 선수단의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점검반을 편성, 사천을 비롯해 인근 진주시, 남해군 등 300여개의 숙박시설을 조사 하는 등 객실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관내 숙박업소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업주들과 협의 중이며, 선수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위생 관리 및 친절 서비스 교육 등 숙박업소 환경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시는 대회 상징물을 통한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상징물 공모를 통해 접수된 총 424점의 작품들을 분야별로 심사하여 대회마크, 마스코트, 포스터, 구호, 표어 등 총 5개 분야의 상징물을 확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대회 홍보에 활용될 상징물 매뉴얼을 제작완료 했다.

또 개·폐회식 연출을 담당할 대행사를 지난 11월 5일부터 29일까지 공개 모집하여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원활한 행사진행과 참여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 3월 10일까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16일에는 민간봉사단체장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관련 단체장 회의를 개최하여 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각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체육 인프라 구축에 '박차'
경기장 리모델링·도심 정비

시는 내년 도민체전을 위해 삼천포공설운동장과 사천공설운동장 등 모두 28개 경기장을 리모델링하고 시설 보완하는 등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에 보완되는 것은 주경기장 본부석 및 관람석, 경기장 외벽, 운동장 증설, 트랙 정비를 비롯해 전광판 설치 등이며, 12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또 유도전용체육관과 테니스장, 농구장, 족구장, 주차장 및 부대시설 등 주변 체육시설 조성사업도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시는 체육 인프라 조성과 함께 도심 경관 정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도로 재포장 및 도색, 교통안내판 정비 등 도로시설물 정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도체 사천시 발전 10년 앞당겨
인지도 급등…경남중심지 도약

시에서는 이번 도민체전이 지역발전을 10여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기며 손님맞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민체전 개최를 통해 경남 중심지로 도약하고 각종 스포츠 인프라가 대폭 확충됨에 따라 체육경기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청정 자연환경과 해양 도시로, 여름철 서늘한 기후를 이용한 체육선수들의 전지훈련장으로 각광 받을 것이며, 도와 전국단위의 다양한 체육행사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민체전을 앞두고 성공개최를 위해 각 분야별로 세밀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개최 후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극대화 하기위한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13년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사천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52회 경남도민체육대회'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12,000여명 규모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27개 종목에 걸쳐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된다.

시 관계자는 "2013년은 사천지명을 사용한지 600주년이 되는 역사적으로 뜻 깊은 해로, 도민체육대회 반세기 역사상 단 한번도 개최하지 못한 오명을 말끔히 씻어내고 사천시 유사 이래 가장 규모 있고 뜻 깊은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는 자긍심을 12만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행사준비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사천시, 내년 살림살이 4514억원 편성

올해 대비 2.2%(96억원) 증액…일반회계 4121억 · 특별회계 393억

사천시가 내년도 본예산을 올해보다 2.2% 증액한 4514억 원으로 편성했다.

액수로는 올해 4418억 원보다 96억 원 늘어난 수치이다. 이 중 일반회계는 4121억 원, 특별회계는 393억 원을 차지한다.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올해보다 8.1% 증가한 444억3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5% 늘어난 395억6000만 원이다.

또 지방교부세는 올해보다 4.9% 증액된 1629억5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예산안을 확정,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복지예산의 증가이다.

복지예산은 올해보다 7.8% 늘어난 1031억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복지예산 비중도 30%에 육박한다. 출산 · 보육정책 확대, 노인 · 장애인 등 계층별 맞춤형 복지를 강화해 경기 악화 속에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취지다.

그 뒤를 이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환경보호비로 67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로 456억 원, 해양관광도시 기반 구축 및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문화관광비로 290억원, 일반 공공 행정 분야에 244억원, 보건 분야에 81억원, 교육경비로 63억원 등을 편성했다.

특히 시는 내년도 예산 편성의 주요 방향을 민선 5기의 시정방침에 부합하는 '활기찬 지역 경제, 체감 높은 든든한 복지, 머물고 싶은 문화관광, 균형있고 특색 있는 지역개발, 꿈을 심는 인재육성'에 두고 편성한 것도 예산의 특징이다.

이에 따라 시가 추진하는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보면 체감 높은 든든한 복지를 위해 △도시 녹색 공간 및 숲 가꾸기 사업 42억원 △삼천포대교음악분수대설치 24억원 △여성회관건립 7억원 △노인 종합복지 타운 조성 5억원을 배정했다.

또 내년도 시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문화관광으로의 사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사천바다케이블카사업 18억 △도민체육대회 30억원 △첨단우주과학관운영 22억원 △비토관광지 조성 및 별주부전테마관광인프라구축 6억원 △항공 산업 발전 방향연구용역 1억원 등이 눈에 띈다.

이번 예산 편성에서 시의 방침은 효율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는 사업은 대폭 축소하거나 제외한 점이다. 행정절차 미 이행사업 예산 편성을 제외하고 유사 · 중복사업은 통폐합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 편성의 경우 지방 재정 책임성 확보 및 재정 건전성 운용을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분석해 사업의 효율성을 검토하여 반영하되,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눈은 세계로, 가슴은 늘 사천을 향했습니다"

재일동포 한창우 회장 끝없는 고향사랑…'사천 시민의 종' 사업비 30억 쾌척

재일동포 사업가 한창우 (주)마루한 회장(81)의 고향 사랑 행보가 멈출 줄 모르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일본 교토에서 열린 '사천시민의 종 기부 협약식'에서 한 회장은 사천 600주년 기념 상징물인 사천 시민의 종 제작을 위해 사업비 30억원의 거액을 지역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쾌척하면서, 그의 남다른 애향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가난한 소작농 아들로 태어나 1947년(당시 16세) 밀항선을 타고 현해탄을 건넌 한 회장은 당시 쌀 두 되와 영어사전 한 권이 가진 것의 전부였다. 사업에 성공한 뒤에도 가난했던 시절이 생각나 장학사업과 기부활동 등을 계속해 왔던 그에게 고향에서 받은 영감과 어린시절 가난했던 기억은 현재까지도 살아가는 힘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그에게 고향 사천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다.

이번 기부에 앞서 그는 지난 2010년에도 사재 60억원을 털어 사천에서 장학재단을 설립, 매년 관내 소외계층의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고향 사천에 대한 한 회장의 각별한 고향 사랑을 엿볼 수 있었다. 이 같은 공로로 한 회장은 그 해 10월 사천시(시장 정만규)에서 처음으로 주는 시민대상을 받기도 했다.

사천시민의 종 제작에 사업비 30억원을 쾌척한 것도 평소 그의 남다른 애향심이 반영된 것. 게다가 정만규 사천시장에 대한 인간적인 믿음과 신뢰가 한 몫을 했다는 후문이다.

"지난 8월 사천 6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고문으로 위촉되면서 시가 사천 6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 추진 중인 사업들을 자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천시민의 종 제작에 대해서도 듣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향우인의 한 명으로써 당연히 뜻을 함께 하게 된 것"이라며 30억원을 쾌척하게 된 배경을 피력했다.

가난한 소작농 아들로 태어나
16세 나이로 밀항선을 타고
현해탄을 건넌 한 회장.
당시 쌀 두 되와 영어사전 한 권
이 그가 가진 것의 전부였다.
사업에 성공한 뒤에도
가난했던 어린 시절과
고향에서 받은 영감으로
장학사업과 기부활동 계속…
그의 삶의 원천은 고향 사천

"특히, 정만규 시장을 몇 차례 만나게 되면서 정 시장의 인간적인 면모에 많이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시장이 되기 전 맨손으로 사업을 일군, 자수성가한 그의 모습에서 사업가로서의 근성을 엿볼 수 있었고, 나와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 더욱 친근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더 나은 시정을 펼치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시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서 신뢰가 쌓이게 되었고, 이번 사천시민의 종 제작에 기쁜 마음으로, 선뜻 기부하게 되었습니다"며 이번 기부의 계기를 설명했다.

이처럼 따뜻하고 인간적인 그의 인격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많은 굴절의 세월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알고 남을 도우려고 하는 인격이 바탕에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밀항선을 타고 일본에 온 16세 사천 출신 소년이 연매출 30조원의 거대 한상(韓商)이 되기까지 한 회장의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다. 광복 직후 일본에 도착한 그는 영양실조에 허덕이는 날이 수두룩했다.

주경야독으로 힘겹게 호세이대학을 졸업했지만 재일 한국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일본 사회는 취업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1953년 교토의 작은 마을 미네야마에서 파친코 가게를 운영하는 매형에게 간 것이 파친코 사업과 인연을 맺은 계기가 됐다. 파친코 경영에 인재 양성, 서비스 혁신 등을 접목시켜 '마루하 니즘'이라는 신조어를 낳기도 했다.

이런 굴곡진 과정에서도 오뚝이처럼 우뚝 선 한 회장은 세계 한상총연합회 회장을 역임했고 포브스가 선정하는 일본의 20대 부자에 3년 연속으로 선정됐다. 88서울올림픽 때는 재일한국후원회 부회장을 맡기도 했다.

한편 한창우 회장은 지난달 일본에서 사천 600주년 기념 상징물인 '사천 시민의 종' 제작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한창우 · 나가코 교육문화재단을 통해 지역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30억원의 거액을 쾌척했다.

전통 목조 기와 형태로 제작될 사천 시민의 종 제작과 관련해 올해 연말까지 종 제작을 위한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10월까지 시청 광장 내 야외갤러리(544㎡)에 종과 종각 건립을 완료해 내년 11월 17일에 타종식을 가질 예정이다.

■ 한창우 회장 약력

△1931년 경남 사천(옛 삼천포) 출생
△1947년 밀항선을 타고 시모노세키 도착
△1953년 호세이대학 경제학부 졸업
△1957년 파친코회사 (주)마루한 창업
△1988년 서울올림픽 재일한국후원회 부회장
△1991년 상공의 날 대통령상 수상
△1993년 세계한인총연합회 결성
△1994년 대한민국 국민훈장 수상
△1997년 세계한상 무궁화대상 수상
△2005년 마루한 연매출 10조원 돌파
△2010년 경남 사천시민대상 수상

사천시, 종포지구 일반산업단지 본격 추진

시의회 간담회서 중단기 조성계획 발표

사천시 용현면 신촌리 일원에 조성될 일반산업단지가 본격 추진된다.

시는 지난 11월 2일 열린 시의회 간담회에서 '일반 산업단지 중단기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업체의 타 지역 유출 방지를 위한 일반 산단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는 종포지구 일반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사업비 435억원을 투입해 용현면 신촌리 일원에 36만여㎡의 부지를 활용해 오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개발키로 했다.

시는 수요 및 투입 사업비를 감안해 1단계로 13만6000㎡를 개발해 긴급 수요에 대응키로 했다. 이어 공장용지 분양 후 2단계 사업으로 22만5000㎡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재정형편을 감안해 국비 등 보조사업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실수요자(KAI)를 포함한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내년 2월 주민설명회와 관련기관의 협의를 구해 각종 지표 및 영향평가를 거쳐 이르면 내년 10월 경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종포지구 개발과 함께 내년 1월에는 총 사업비 727억원을 들여 사천읍 용당리 일원 31만1000㎡에 일반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천시보가 전하는 전국향우 동정

사삼운동본부, 인천본부 설립

(사천삼천포에 가보자 운동본부)

재인천 사천삼천포향우회 겸 '사천삼천포에 가보자' 운동 인천본부가 지난 11월 3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인천시 송도 본토 (중국요리점)에서 출향인 애향운동 '사천삼천포에 가보자' 운동 주본부 천봉근 회장과 재경 남양향우회 신동고 회장, 정준옥 고문과 재인천시 부천시 향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식을 가지고 출범했다.

이날 창립은 지난 4월 '인천지하철 4개역 릴레이사진전' 개최를 준비하면서 애향운동 '43가보자' 운동 인천본부를 창립코자 하였으나, 현재까지 인천향우회가 없었기에 향우들이 얼마나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은 실정이었다.

이에 천봉근 회장이 지난 4월부터 재 인천 향우 소재파악에 들어가 9월경에 200여명의 재인천 향우들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하고, 이들과 '1대1'로 우편연락과 전화통화를 수차례 시도하였다.

그 결과 40여명의 향우들이 '재인천 43향우회 겸 사천삼천포에 가보자' 운동 인천본부 창립에 호의적이라 이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어 창립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위원장 김성일 향우에게 인적명부와 회칙초안 자료를 정식으로 인수인계하여 결국, 이날 창립총회를 하게 되었다.

이날 총회에서 초대회장에 김성일 (60세, 한성금속 주식회사 대표이사. 남양출생)향우를 추대하였고, 고문 최동주(70세, 사천읍출생)향우, 사무국장에 정기성(56세, 용현면 출생)향우, 총무 김영숙 향우, 감사에 김수근 향우를 선임하였다.

대구에서 온 향우들의 아름다운 미담

대구에서 향우들이 좋은 일들을 하여 주변의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 10월 대구에서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된 가운데 재대구 43향우회 · '사천삼천포에 가보자' 운동 대구본부(회장 정대요)는 지난 10월 12일부터 체전에 경남대표로 출전한 사천시청과 삼천포여고 농구팀을 찾아 격려했다. 또 첫 경기가 펼쳐진 12일부터 결선일인 17일까지 경기장에 15명에서 20명의 향우들이 참가하여 고향 선수팀을 응원하였다.

이와 함께 대구43향우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문영욱 향우가 몇 달 전, 출장을 가고 없는 사이에 문 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에 거래 상담을 하기 위하여 후배 한 사람이 찾아 갔다.

관련부서 임원을 만나 거래성사를 위해 상담한 결과가 좋지 않아 빈손으로 되돌아 온 것을 전해들은 향우들은 학교 후배이자 향우인 사람을 어려울 때 도와주어야 된다며 다시 불러 재 상담을 했다.

그 결과 문사장의 회사에서 요구하는 부품을 만들어 납품하려고 해도 그 후배의 공장에 그 부품생산에 필요한 기계설비가 부족한 점을 알고, 해당 기계를 사주면서까지 자기회사와 거래를 하도록 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많은 사람들이 흐뭇해하고 있다.

'실안관광단지' 밑그림 그려졌다

29만㎡ 호텔 · 음식점 · 상가 등 특화 복합관광지 조성

"꼭 한 번은 머물고 싶고 또 다시 찾고 싶은 곳, 향후 남해안을 대표하는 해양 복합 관광단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사천 실안관광단지' 밑그림이 그려졌다.

사천시는 실안동 일대 29만여㎡에 호텔, 전문 음식점과 상가를 짓고, 다양한 해양관광자원을 특화시켜 '4계절 체험 · 휴양형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1월 5일 오후 2시 30분부터 3층 중회의실에서 정만규 사천시장을 비롯해 이효수 부시장과 최용석 시의원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천 실안관광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장기간 개발이 침체됐던 실안유원지에 대해 시는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체험과 휴양을 겸한 복합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이곳에 숙박 시설을 늘려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적극적인 개발 및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과업은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숙박시설 및 주차장 확대 ▲국도 3호선에 대한 원활한 접근 동선 대안 확보 ▲주변 관광 여건(삼천포 대교, 사천바다케이블카, 삼천포대교 공원 등)을 연계한 해양 관광단지 조성 등이다.

특히 시가 중점을 두는 것은 향후 초양도와 각산을 잇는 사천바다 케이블카 조성과 맞물려 실안 관광단지에 숙박시설을 확대 조성해 체류형 관광단지로 개발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8월 열린 주민공청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의 녹지공간과 운동 오락시설을 모텔과 펜션 단지로 대체하는 등 숙박시설을 늘리고, 주차장을 확장하는 등 관광기반 시설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외에도 해양개척자공원, 외국 해양공원, 마도로스 해양 박물관 등을 조성해 해양관광자원을 특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실안유원지(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결정 등을 거쳐 내년 3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투자자를 찾지 못해 장기간 사업이 지체되는 바람에 지주들의 불만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향후에는 사업성을 고려해 모텔이나 펜션 등 숙박시설을 늘려 단지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머물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은행, 사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장학금 전달

경남은행이 사천시 교육발전을 위한 인재육성사업에 힘을 보탰다.

경남은행(은행장 박영빈)은 지난 11월 15일 오후 2시 시청 6층 시장실에서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이사장 정만규)에 장학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경남은행이 전달한 장학기금은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추진하는 인재육성사업과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방문한 강흥대 본부장은 "오늘 전달한 장학기금이 지역의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밀알로 소중히 사용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천시민의 사랑으로 창출한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학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경남은행은 은행 장학재단인 경은장학회와 공익재단인 경남은행 사랑나눔재단을 통해 학비, 교복,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경남은행은 매년 창립기념일을 맞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의 우수 장학생들을 초청해 창립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다.

제165회 사천시 임시회 개회

의회위원회 조례 개정안 등 18건 처리

2013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
KAI 민영화 반대결의안도 채택

사천시의회는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제16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6대 사천시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로서 지난 7월 후반기 의장단 선출이후 내부 갈등을 진정하고 화해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기간을 거친 후 새롭게 하나된 모습으로 행복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며 회기 첫날을 시작하였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은 의원발의의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동의안 등 모두 18건의 안건과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로 구성되어 있다.

1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둘째날인 14일에는 총무위원회에서는 기능직 사무직렬의 일반직 전환 및 사회복지직 순증에 따른 일반직 정원조정을 위한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변경에 따른 「사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 바다케이블카 상·하부 정류장 부지매입을 위한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제4차 변경계획안」 등 10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3년 3월경 개관을 앞둔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과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의하였다.

15일부터 20일까지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며 내년도 시정의 중요정책 및 방향을 논의하며 당부사항을 전하기도 하였으며, 1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긴급한 안건을 먼저 의결함으로써 시정업무의 원활을 기하는데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21일에는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2012년~2016년에 걸친 5개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청취하고 사천시의 미래비전과 의정활동을 점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회기 마지막 날인 23일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세 분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였으며, 특히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은 우리시 대표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민영화와 관련한 「대한항공 KAI 민영화 반대결의안」을 채택하고 임시회를 모두 마쳤다.

결의안의 내용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신청업체인 대한항공이 지난 11월 20일 부산지역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부산시와 MOU를 체결함으로써 경남에서 추진중인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크나큰 차질이 발생할 뿐아니라 국가경쟁력 하락이 우려됨에 따라 대한항공과 부산시와의 MOU 체결 즉각 철회와 대한항공의 KAI 민영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반대 및 경남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청와대, 국회, 지식경제부, 국방부, 부산시, KAI, 각 정당대표 등에게 결의안을 통보할 예정이다.

사천시의회, 의정실무 특강 실시

조례입법·내년도 예산안 효율적 심의 위해

경남 사천시의회(의장 최갑현)는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2012년 제2차 정례회 대비, 조례입법과 내년도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의정실무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날 특강에는 최갑현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전원과 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이 참석해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 서우선 박사의 강의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가한 의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 편익 도모와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연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12월 3일부터 21일까지 19일간 개최된다.

16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최수근 의원
총무위원회

사천시 나 선거구 무소속 최수근 의원입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저의 5분 자유발언 요지는, 비토 별주부전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포면 비토마을 하봉지역에 있는 국유지 임야 65필지와, 민재봉 정상 2필지의 시유지를 교환하여 우리시가 비토 하봉지역 임야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싼값에 취득한 비토 하봉지역 일야를 활용할 수 있다면, 비토 별주부전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민자유치는 가능할 것이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되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비토 하봉지역 임야 취득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첫째, 비토 별주부전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민자유치 사업이므로 값싼 국유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민간자본은 속성상 손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곳에는 아무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돈벌이가 되는 곳에는 서로 투자하려 하지만, 적자가 예상되는 곳에는 아무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민자유치를 위해서는 값싼 국유지를 매입하여, 주변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경쟁력있는 양질의 토지를 공급할 수 있어야, 민자유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비토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별주부전의 전설을 기반으로 해야하므로, 비토 하봉지역이 구역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비토 별주부전의 발원지는 비토섬 하봉지역에 있는 월등도 앞바다와, 그곳에 있는 토끼섬과, 거북섬, 목섬 지역입니다. 뛰어난 자연의 아름다움과 비토 별주부전의 발원지인 비토 하봉지역이 비토 별주부전 관광단지 조성사업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 생각되며, 지금 이라도 계획을 변경하여 추가로 편입시켜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토 별주부전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 조성한 별주부전 테마 파크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 조성한 별주부전 테마파크 조성 사업지와 비토 하봉지역은 연접지역이므로, 양 지역을 아우르는 계획으로 추진되어야 테마파크와 관광단지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네 번째, 따라서 하봉지역 국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곳에서부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의 원활함은 물론 시 재정에도 이익이 될 것입니다. 민재봉의 시유지는 총 2필지에 약 187만㎡ 이고,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약 9억4천2백만원 정도입니다. 비토 하봉지역 국유지는 총 65필지에 약 9만 7천㎡이고,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약 10억 4천9백만원 정도로서, 시가 부담할 차액은 약 1억 7백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실제 교환시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면적이 크고 공시지가가 저렴한 민재봉의 시유지 평가액이, 하봉 국유지의 평가액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실제 교환시에는 시의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와같은 사유로 비토 하봉지역에 있는 국유지와 민재봉 정상의 시유지를 교환하는 것은 우리시로서는 추진해야하는 명백한 이익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의지와 신속한 결단을 내려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사천시 가선거구 출신 최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갑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무원 공로연수제와 부산시와 대한항공 간의 항공클러스터 조성 MOU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로연수는 1998년부터 정년을앞둔 공무원의 사회적응기간 제공과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 시행되어 온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로연수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근무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 근거를 두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적용범위와 절차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일 뿐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르면 퇴직 6개월 미만인 사람은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공로연수 파견을 명할 수 있지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은 본인이 신청해야만 공로연수 파견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공로연수는 조직의 인력 운영의 탄력성과 공무원의 사회적응이라는 순기능이 일부 있지만, 역기능도 많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도를 축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로연수의 대표적 역기능은 본인 의사에 반해 거의 반강제로 인사를 단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도 2010년 모 국장이 본인 의사에 반한 공로연수 파견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한 사례가 있었으며 경남 모 군청 6급의 1인 시위, 충북 모 군청 사무관의 행정소송 등 많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으로 국민의 정서입니다.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정부와 국민 그리고 사용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강조합니다. 공로연수는 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으로 언론에서도 수차례 예산낭비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제도의 폐지 또는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근 진주시는 이런 점을 반영해 공로연수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전남과 대전광역시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도는 2006년부터 공로연수를 6개월로 단축하여 본인 의사에 따라 시행하는 1년짜리 공로연수는 폐지하였습니다. 공로연수의 역기능 중 마지막은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가진 분들을 단지 나이가 들고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직에서 배제해 그분들의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사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이는 더 이상 나이가 많다고 일을 그만두지 않는 시대가 다가온 것이며 이를 반영하듯 국책연구기관과 민간 연구소들에서는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공로연수의 폐지나 변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의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로연수 시간을 대폭 축소하다가 점차 폐지하여 정년이 되는 날 명예롭게 동료의 박수를 받으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정만규 시장님!

공로연수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을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부산시와 대한항공의 항공클러스터 조성 MOU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9일 부산시와 대한항공은 부산 강서지구에 부산항공클러스터 조성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KAI 인수를 추진하는 대한항공의 이번 조치는 KAI 인수 후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짐작하게 하는 행태입니다.

대한항공이 KAI를 인수한다면 1999년 항공 산업 구조 조정 후 우리 시와 경남도, KAI가 이룩한 경남 항공클러스터 조성을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며 지역 경제 낙후 및 시민 생활의 질 저하 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현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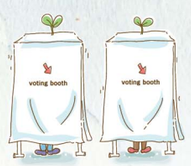
대한항공 측에서는 이번 MOU가 경남 항공클러스터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한 곳에 역량을 집중해도 힘든 경제 여건에서 분산 추진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언행입니다.

KAI의 민영화가 시장 경제 논리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면에서는 시장 경제 논리와는 반대되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한 것이며 우리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함께 뜻을 모아 우리 향토기업 KAI를 사수하고 지역의 숙원인 항공클러스터 완성을 위해 관심과 지원 부탁합니다.

날씨가 매우 차가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여기 모이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투표소 설치장소 안내

2012. 12. 19.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경상남도지사보궐선거에 있어 다음과 같이 투표소가 설치되오니 **선거일(12. 19. 오전 6시~오후 6시)**에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 투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구명		장소(시설)명	소재지	관할구역	비고
사천읍	제1투표구	사천초등학교(2학년4반)	사천읍 읍내로59(선인리577)	선인 1, 2, 3, 5, 6리	
	제2투표구	사천읍사무소	사천읍 읍내로52(평화리29)	평화1,2,3리, 사주1,2리, 구암1,2,3,5리	
	제3투표구	하늘꿈어린이집(구.동성초등학교)	사천읍 동성길42(수석리152)	수석1,2,3,5,6,8리, 용당1,2리	
	제4투표구	사천농업협동조합(1층)	사천읍 사천읍성로51 (정의리411-1)	정의1,2,3리, 수석7리, 장전1,2리, 금곡, 두량1,2,3,5,6리	
정동면	제1투표구	동성초등학교[본관북도(제1현관)]	정동면 동계길45(고읍리484-1)	고읍, 동계 1,2,3리, 예수, 반용, 염광	
	제2투표구	동성초등학교[본관북도(제2현관)]	정동면 동계길45(고읍리484-1)	동계 5, 6, 7, 8리, 화암	
	제3투표구	정동농업협동조합(1층)	정동면 상정대로2491 (대곡리301-2)	여옥,풍정1,2,3,5,6리, 수청,대곡,노천,대산, 복상,감곡,만마,학촌,소곡,가곡,객방	
사남면	제1투표구	삼성초등학교(1학년1반)	사남면 사남로1074 (죽천리6-2)	죽천,상죽,용두,초전,방지,도동,병둔, 화전,예의,구룡,우천,능화,연천,가천, 종천,소산,사촌,대산,송암,계양,진분계	
	제2투표구	사주체육관	사천읍 진삼로1279-32(사주리146-3)	유천,하동, 월성 1,2,3,12,13,14리	
	제3투표구	사남초등학교(학습도움실)	사남면 조동길49-28(월성리491)	월성 5,6,7,8,9,10,11리, 곡성, 조동	
용현면	제1투표구	용남중학교(음악실)	용현면 선진길24 (선진리67)	선진,연호,신기,통양,신촌, 종포,신복,평기,신영,동강1,2,3,5리	
	제2투표구	용현초등학교(급식소)	용현면 진삼로628 (송지리186)	온정,용정,석계,구월,금구,용치,송지1리, 송지2리,장송,신송,평송,금문,주문,신평, 덕곡1리,덕곡2리,덕곡,부곡	
축동면	축동면 투표구	축동면사무소(회의실)	축동면 길평1길20 (배춘리772-30)	신기,양동,배춘,운계,길평,사다,예동, 상탑,중탑,하탑,신촌,관동,반룡,용산, 용수,가산,구호	
곤양면	제1투표구	곤양초등학교(강당)	곤양면 성내로25 (성내리18)	삼동,수동,옥곡,남문,후전,사동,상정, 우티,무고,상평,맥사,송정,포곡,당천, 석문,한월,제민,어류,본촌,고동포,목단	
	제2투표구	구.건흥초등학교	곤양면 검정1길41 (검정리88)	환덕,묵실,동천,흥사,가화,검정, 와티,안도,점복개	
곤명면	제1투표구	곤명면사무소	곤명면 원전새길64 (봉계리990-8)	오사,추동,신산,용산,조장,원전,오저, 초량,삼정,은사,옥동,마곡,송림	
	제2투표구	곤명초등학교(급식소) (구.완사초등학교)	곤명면 완사3길61 (정곡리848-1)	성방,작팔,구몰,만지,고월,완사, 신기,본촌,양월,금성,장신,연평	

투표구명		장소(시설)명	소재지	관할구역	비고
서포면	서포면 투표구	서포초등학교(다목적강당)	서포면 나분이길9 (구평리725)	금진,후포,내구,굴포,신흥,서구,동구, 남구,조도,구랑,조교,중촌,구포,구평, 통정,대포,선창,염전,아포,비토,다맥,신소	
동서동	제1투표구	동서동주민센터	수남길102(서동272-4)	동서동 1, 2, 3, 10, 11, 12, 15, 17, 18, 19, 20, 22(마도), 24, 25통	
	제2투표구	동서어린이집	동서1길61(동동360)	동서동 4, 5, 6, 7, 8, 9, 13, 14, 16, 21통	
	제3투표구	대방마을회관	대방2길32(대방동337-1)	동서동 23, 28, 29, 30, 31, 32, 33, 34, 35통	
	제4투표구	신수초등학교(급식소)	신수서길1-46(신수동217)	동서동 26, 27통	
선구동	제1투표구	삼천포초등학교(체육관)	각산로10(선구동112)	선구동 8, 9, 10, 11, 12, 13, 14, 15, 16통	
	제2투표구	사천체육포럼(구.고려페인트)	한내로28(선구동13-28)	선구동 1, 2, 3, 4, 5, 6, 7통	
	제3투표구	사천시환경복지회관	삼천포대교로511 (동림동81-3)	선구동 17, 18, 19, 20, 21, 22, 23통 (동림동, 좌룡동일원)	
동서금동	제1투표구	삼천포공업고등학교 (기술명장교육실)	신항로63(동금동45-1)	동서금동 9, 10, 11, 12, 13, 14, 15, 16, 17, 18통	
	제2투표구	노산초등학교 (학습도움반풀잎반)	동금로71(동금동171-5)	동서금동 1, 2, 3, 4, 5, 7, 8, 19, 20통 (6통폐지)	
벌용동	제1투표구	삼천포제일중학교(2층강당)	상강청길34(용강동505)	벌용동 1, 2, 3, 4, 5, 6, 11, 19, 38, 39, 40통	
	제2투표구	문선초등학교(강당)	삼삼로25-12(벌리동481-2)	벌용동 7,8,9,10,15,16,17,18통	
	제3투표구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	벌리6길102(벌리동256-11)	벌용동 12, 13, 14, 20, 21, 26, 28통	
	제4투표구	삼천포체육관	주공로32-1(용강동816-3)	벌용동 22, 23, 24, 25, 27, 29, 30, 31, 32, 33, 34, 35, 36, 37통	
향촌동	제1투표구	향촌동예비군중대본부 (구.향촌동사무소)	향촌5길12(향촌동840-1)	향촌동 2, 3, 4, 5, 6, 7, 8, 9, 10, 19, 20통	
	제2투표구	용산초등학교(강당)	삼삼로223-31(봉남동479)	향촌동 1, 11, 12, 13, 14, 15, 16, 17, 18통	
남양동	제1투표구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임내길36(죽림동581-33)	남양동 1, 2, 3,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통	
	제2투표구	경남지체장애인협회사천시지회	노대길178(노룡동624-1)	남양동 4, 5, 6, 7통	

흥사일반산단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보고회

2014년 준공 예정 총길이 5.15km구간 지방도 개설…차량통행 편의 기대

사천시 흥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개설공사가 가시화 되고 있다.

사천시는 지난 11월 12일 오후 3시부터 시청 6층 중회의실에서 정만규 시장과 이효수 부시장을 비롯해 각 실과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천 흥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보고회'를 가졌다.

시는 사업비 328억원을 들여 오는 2014년까지 지방도 1001호선 곤양면 검정리~곤양면 흥사리구간과 지방도 1002호선 곤양면 검정리~축동면 가산리 구간의 총 길이 5.15km구간 도로 개설을 통해 차량통행의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흥사일반산업단지(649,423㎡)가 오는 2014년 사천시 곤양면 흥사리 일원에 조성되면, 지방도(1001호선, 1002호선)가 산업단지 및 대형공장 등의 입지로 교통량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을 통해 차량통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도 1001호선 곤양면 검정리~곤양면 흥사리 3.64km구간을 넓이 13m, 2차선 도로로 확·포장 하는 가운데 3m 가량은 농기계 진입 및 보도를 겸용한 도로로 개설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방도 1002호선 곤양면 검정리~축동면 가산리 1.51km 구간을 넓이 10m 도로로 일부 구간 확장하며, 길이 320m의 제2가산교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8월 경화엔지니어링이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3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가진 후, 이날 보고회를 거쳐 내년 1월 공사에 착공, 오는 2014년 12월 경 공사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

오는 2014년 준공을 목표로 곤양면 흥사리 산117번지 일원에 공사가 진행 중인 흥사 산업단지(면적 649,423㎡)는 비금속광물제품(23개)과 기타 운송장비(31개),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29개), 자동차 및 트레일러(30개) 등 총 113개 제조업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편 이번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그동안 시가 국비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 기반시설비 전액인 300억원을 국비로 확보하는 쾌거를 거둔 것으로,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 액수인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

시는 사업비 328억원을 들여 오는 2014년까지 총 길이 5.15km구간 도로 개설을 통해 차량통행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향후 흥사일반산업 단지가 조성되면 지역개발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우수기업 유치 및 2000여 명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됨에 따라 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시 관계자는 "흥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완성되면 인근 지역의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해소될 뿐 아니라, 농기계 등의 진출입이 원활하여 인근 주민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해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된다"며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내실 있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잠수병 전문치료시설 사천에 생긴다

행안부 특별교부세 7억 확보, 내년 준공

잠수병 전문치료기기(챔버)가 내년 사천시에 설치되어 잠수 어업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진료가 이뤄질 전망이다.

사천시는 잠수 어업인들에게 고질병인 잠수병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1단계로 관내 병원 중 한 곳을 위탁 의료기관으로 선정, 10억원 가량을 들여 잠수병전문치료기기인 챔버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챔버 시설은 그동안 사천시와 새누리당 여상규(사천남 해하동)의원의 꾸준한 노력으로, 지난달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잠수병 감압치료 장비인 챔버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고압 챔버 시설은 기압을 높일 수 있는 기기로 그 속에 잠수병 환자를 수용하고 고압 산소를 공급해 체내에 축적되어 있는 질소를 배출시키는 잠수 관련 질환 치료를 위한 첨단 기기다.

그동안 사천시 삼천포항과 남해, 하동에는 잠수병 치료시설이 없어 잠수 어업인과 스킨 스쿠버 등 해양레포츠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통영과 거제, 여수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겪어온 만큼 이번 챔버 설치에 대한 잠수어업인들의 관심이 크다.

시 관계자는 "이번 챔버 시설은 어업인들의 이용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관내 위탁 병원 한 곳을 선정해 이르면 내년 말 경에 설치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는 어업인들의 건강 뿐 아니라 의료관광이나 해양관광사업, 해저잠수산업, 스포츠산업 등의 활성화에도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보여 진다"고 전했다.

여상규 의원은 "잠수 어업인의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고, 해양레포츠 활성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잠수병 감압시설 설치는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며 "사천·남해·하동지역의 턱 없이 부족한 해양수산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해양관광을 활성화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市, 활어 일시보관시설 이달 준공

사천시는 어종별, 시기별 생산량의 기복이 큰 활어의 출하량을 조절하기 위해 '활어 일시 보관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어민들이 어획한 활어를 살아있는 상태로 일시 보관한 뒤 출하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육상 활어 일시보관시설을 이달 중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대부분 활어상태에서 유통됨에 따라 어획 직후 곧바로 위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획량이 많을 경우, 평소에 비해 값이 폭락하는 등 어획량에 따른 출하량 조절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12월 중으로 사천 수협 활어 위판장 내에 총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해 활어 일시 보관시설(1개소)을 준공한다. 육상 활어보관시설(길이17m, 폭1m 가량)을 설치해 활어를 일시 보관한 뒤 출하량을 조절, 활어 값 폭락을 막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이 시설은 구조물이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 부식 및 충격에 강하며 사용 수명이 길어 경제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종전보다 넓은 작업 공간확보로 작업자의 안전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구역 경계 조정

사천시가 주민 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한다. 시는 도시화에 따른 도로개설 등으로 일단의 토지가 2개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 건물, 도로 등 지형물과 주민들의 생활권에맞게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학교, 택지, 아파트 등동일 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거나 도로개설, 하천 정비 등으로 인해 생활권이변경된 곳이다.

이에 앞서 시는 이달 말까지각 읍·면·동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 및 실태조사를 마치고, 내년 하반기까지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측량성과에 의해새로운 지번을 부여하게 된다.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동절기 대비 저소득층 전기·가스 요금 긴급 지원

사천시는 한국에너지재단의 에너지 나눔 기금을 통해 저소득계층에 대한 전기·가스요금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는 강추위가 예고되는데다 고유가 위기마저 겹쳐 저소득 계층의 난방용 연료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저소득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연료를 지원하기로 밝혔다.

한국에너지재단의 지원으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에너지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지원대상은 3개월 이상 전기·도시가스요금이 미납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저소득층 가구이며, 20만원 한도 내 미납요금을 지원하고 전기, 가스요금에 대한 중복지원도 가능하다.

이번 지원사업은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하며, 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돼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및 하나의 계량기를 여러 세대가 사용하는 가구는 지원이 안되지만, 단독으로 고지되는 가구의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있다.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지역경제과로 문의(☎055-831-3065)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사업 시행에 따라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2013년 1월말까지 신청을 받고 한국에너지재단 심사를 거쳐 확정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난방연료 지원으로 취약계층 이웃들이 온기 있는 겨울나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주민 홍보

사천시에서는 각 가정 내 수도계량기 동파예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응급복구를 위한 종합대책 상황실을 내년 2월말까지 운영한다.

시는 본격적 한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동파 및 결빙 등 주민의 수돗물 이용불편 예방을 위해 '2012 겨울철 상수도 종합계획'을 수립, 이달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올 겨울 전반적인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겠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 등 기온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돼 지난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상수도 종합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비상근무 체조로 돌입, 한파 내습시 수도계량기가 동파될 경우에 대비하게 된다.

이에 시는 향후 수도 계량기가 동파될 경우 한국수자원공사 사천수도센터 상수도 CS반을 현장에 즉시 투입해 신속하게 교체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동파방지 요령으로는 계량기 보호통 내부에 헌 옷가지, 폐담요 등을 채우고 외부를 비닐 등으로 막아 밀폐하면 찬 공기의 유입이 차단돼 동파를 막을 수 있다.

또 한파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경우나 설 연휴처럼 오랫동안 집을 비울 경우,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시 관계자는 "동파취약세대를 집중 관리하며, 수도계량기의 경우 보호통 내부의 보온상태를 점검하여 보온상태가 훼손되거나 미흡한 가구에 대해 동파예방 홍보문을 배부하는 등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동 해충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강화

사천시는 기온이 낮아짐에 따라 월동 위생해충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 중순까지 한 달 여 동안 동절기 방역 소독을 실시한다.

이번 동절기 방제활동은 최근 기온이 낮아지면서 따뜻한 공간으로 이동해 겨울을 나는 모기 등 해충의 습성을 이용한 것으로, 위생해충의 개체수를 최소화하고 월동 위생해충을 구제함으로써 방역소독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 보건소는 위생해충의 알이나 유충이 은신하기 쉬운 정화조와 하수구를 집중 방제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대형목욕탕 주변, 축사 주변, 쓰레기장, 건물 지하 등 해충발생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방역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방역소독은 보다 적은 살충제를 이용하여 많은 수의 해충을 구제할 수 있다"며 "각 가정에서도 정화조와 건물지하 등을 중심으로 해충구제 활동을 함께 실시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절기 해충으로 인한 불편사항이나 주택 주위 정화조 및 오수에 모기 등 해충 발생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시 방역담당자(☎831-3623)에게 문의하면 된다.

2013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희망 학생 모집 공고

우리시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한 미국교환학생 프로그램의참가 희망학생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일

사 천 시 장

1. **모집기간** : 2012. 11. 20. 09:00 ~ 12. 7. 18:00(18일간, 토·일요일 제외)
2. **선발인원** : 5명
3. **참가자격** : 2012. 11. 1. 현재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부·모)의 자녀 중 관내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으로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여야 하며, 출국 시 만 15세 이상 17세 이하(1996. 3. 1. ~ 1998. 6. 30.)의 학생이어야 함.(참가 연령 기준은 추진과정 중 미국 현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 전과목 평균성적(최근 3년간) "우"이상, 영어(과목) 전학년 "우"이상
   - SLEP 테스트 합격자(67점 만점에 50점 이상, 최저 기준은 변동될 수 있음) 및 인터뷰 통과 학생
   - 미국 내 가정에서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성격 소유자
   - 건강검진에 이상이 없는 학생
   - 본인의 확고한 학습의지와 미국 비자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 학생
4. **참가조건**
   - ㅇ 미국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중학생은 향후 사천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 및 복학, 졸업하여야 함.
   - ㅇ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참가 포기(귀국 등) 시 사업비전액 반납(학부모 이행각서 작성)
   - ㅇ 학부모와 학생은 미국 공립학교 및 홈스테이 배정, 현지 학교 교과 과정 등 교환학생 진행과 관련된 모든 추진 사항에 대하여 일체 관여할 수 없음.
5. **참가 희망 학생 선발**
   - ㅇ 선발인원
     - 1차 선발 : 중학교 전학년 평균성적 "우"이상 및 영어과목 "우"이상으로, 생활기록부상 학습태도 및 학습의지가 확고하며, 미국가정생활 및 교육환경에 성실히 적응할 자세를 갖춘 학생
     - 2차(최종) 선발 : 5명(SLEP 테스트 및 영어면접 합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6. **접수 및 발표**
   - ㅇ 접 수 처 : 사천시 총무과 평생학습담당(☎ 831-2580)
   - ㅇ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학생 및 학부모(친권자)동반))
   - ㅇ 발 표 : 2013. 1월중
7. **접수 시 제출서류**
   - ㅇ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 1부. (시 홈페이지 첨부파일 다운로드)
   - ㅇ 이행 각서 및 학부모(친권자) 인감증명서 각 1부
   - ㅇ 성적확인서 및 생활기록부사본 (전학년, 성적사항 포함) 1부.

자동차세 납부 안내

12월은 2012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자동차세는 우리시의 지역발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되오니 납기 내 납부하시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의무자** :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 **납 기** : 2012. 12. 16 ~ 12. 31.

■ **납부방법**
- ㅇ 납부장소 :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 ㅇ 직접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 가능
- ㅇ CD/ATM(현금자동입출기)납부 : 전국금융기관 CD/ATM기☞ 지로 공과금납부☞ 지방세☞ 과세내역조회 및 전자납부번호입력☞ 납부
- ㅇ 가상계좌번호 납부 : 농협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하여 무통장입금이나 인터넷뱅킹 ATM기기를 이용해서 계좌이체로 납부(납부 시 송금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ㅇ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접속로그인하여 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가능)

※ 신용카드 납부 시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CD/ATM에서 타사카드를이용하여 납부할 경우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됩니다.

■ **이의신청** : 자동차세 부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바랍니다.

■ **납부경과 후 조치** :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 그 후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인 경우)이 추가되며, 자동차 번호판영치,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및 공매처분 등의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 의** : 시청 세무과 자동차세 담당자(☎831~2870) 및 읍·면·동 세무담당자

2013학년도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신입생 모집

1. 모집내용

구 분	양 성 교 육 과 정			
모 집 인 원 (선착순 모집)	진주	주간반 100명, 야간반 65명		
	사천	주간반 35명		
교 육 기 간	1년(2013년 3월 ~ 2014년 1월 예정), 여름방학 6주(7~8월)			
교 육 시 간	진주	주간반	월 - 금	6시간(09:30 ~ 14:25)
		야간반	월 - 금	6시간(18:20 ~ 23:05)
	사천	주간반	월 - 금	6시간(09:30 ~ 14:25)
지 원 자 격	고등학교 졸업(검정고시 포함) 이상 학력소지자 **4주 연속 보육실습이 가능한 자**			
모 집 일 정	2012. 12. 1(토) - 2013. 2. 20(수) 09:00-18:00			
접 수 방 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인터넷접수(www.jineducare.net)			
면 접	① 방문접수 - 서류 접수 시 방문면접 ② 인터넷, 우편접수 - 접수 후 2주이내 수시면접			
제 출 서 류	① 입학지원서 (소정양식) 1부 ②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증명사진 5장(최근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매 원서 부착, 4매 제출(뒷면에 반드시 성명을 기재)			
수 강 료	1,702,000원 (교재대 및 보육실습비 별도) - 2012학년도 기준 **※ 2013년도 수강료는 경상남도 고시 후 인상분 추후 납부**			
전 형 방 법	수강료 선착순 모집			

※ 입학식 및 개강안내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jineducare.net)참조.

2. 본 과정의 특징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취득
   2. 자격취득 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취업가능하며, 일정보육 경력 후 어린이집을 경영(원장)할 수 있음.
   3. 3급 자격취득 후 일정 경력 이상인 자는 승급교육을 통해 2급/1급 자격 취득 가능.
   4. 본 교육원 교육시설과 수업에 필요한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모든 시설 이용이 가능.
   5. 각종 대학 유아교육 및 아동복지 관련학과의 특별전형 대상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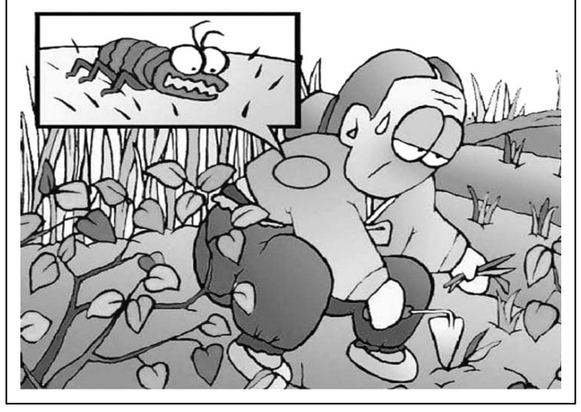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660-758 진주시 동진로 33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관 213호
664-705 사천시 벌리동 259 벌리주공아파트 내 벌리종합사회복지관 2층
TEL (055)751-3723~4 / FAX (055)759-4433

쯔쯔가무시증 예방 수칙

◈ 쯔쯔가무시증 예방 수칙
- 풀밭 위에 옷을 벗어 놓고 눕거나 잠을 자지 말 것
- 휴식 및 새참 먹을 땐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릴 것
- 작업 중 풀숲에 앉아서 용변을 보지 말 것
- 작업 시 기피제 처리한 작업복과 토시를 착용하고, 소매와 바지 끝을 단단히 여미고 장화를 신을 것
- 밤따기나 등산 등 야외활동 시 기피제를 뿌리거나 긴 소매, 양말을 착용할 것
- 작업 및 야외활동 후에 즉시 샤워나 목욕을 하여 진드기를 제거할 것
- 작업 및 야외활동 후 작업복, 속옷, 양말 등 세탁할 것

◈ 임상증상
야외 작업활동 후 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나타나는 가피가 형성되거나 갑작스러운 발열, 심한 두통, 오한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것

◈ 전파경로
감염된 진드기 유충에 물려서 감염



사천읍 사천성, 복지시설에 무료식사 제공

사천읍에 소재한 사천성을 운영하는 김홍수 대표가 지난 10월 30일 오후 사천성에서 사회복지시설인 신애원 원생 50여 명을 초청해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이날 식사 초청을 계기로 김홍수 대표는 신애원생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달 한번씩 음식대접을 할 예정이다. 한편 김홍수 대표는 매월 1회 관내 경로당를 비롯한 무의탁노인들을 대상으로 자장면과 탕수육 등 무료 식사를 대접하고 있다.

정동면 정동면 영농철 감따기 일손돕기

본격적인 단감 수확철을 맞이하여 단감재배 농가의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정동면에서는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중순까지 일손돕기에 나섰다. 이번 일손돕기에는 공군제3훈련비행단, 4대대, 철쭉회, 경찰서, 선구동조직단체, 정동면 직원 등 약 18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서리 피해를 입기 전에 수확을 마무리하기 위해 단감 따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시 관계자는 "단감 등의 과실수확은 기계화가 불가능해 특정시기에 집중적으로 수확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농가에서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여러 단체들의 적극적인 일손 돕기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사남면 법질서 확립 및 행락질서 캠페인 실시

사남면 바르게살기운동 위원회(회장 윤유덕)에서는 지난 11월 5일 우리생활 주변에 남아 있는 불법·무질서를 바로 잡아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행락질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에 동참한 사남면(면장 강연주)과 유관기관 직원 30여명은 이날 법질서확립을 통한 공정사회 실현과 선진 질서문화 정착을 위해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기관·단체장 및 조직원 단합행사 가져

사남면(면장 강연주)에서는 지난 11월 16일 면내 28개 단체 10개 기관의 75명이 화합과 소통을 다지는 조직원 견학 행사를 실시했다. 이 행사는 사남면의 조직원들 간에 친목과 화합 그리고 소통의 장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자생조직단체들 간 역할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

용현면 용현면 농촌 일손 돕기 가져

용현면(면장 박명영)에서는 지난 11월 2일과 6일 양일간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용현면 석계리에 소재한 과수 농가를 방문해 농촌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용현면과 시청 건축과 직원을 비롯해 용현면대 합동으로 실시한 이날 농촌 돕기는 감따기와 포장작업 등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고충을 덜어주었다.

축동면 축동면, 농촌 봉사활동 실시

축동면(면장 최 일)에서는 지난 11월 2일 축동면 직원들이 합동으로 축동면 탑리에 소재한 감나무 밭에서 가을철 농촌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과수원(3000㎡)에서 직원들은 하루 동안 약 3000kg 분량의 감을 수확하여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에 도움을 주는 등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곤양면 '제26회 곤양면 체육대회' 성료

면민화합 한마당 잔치인 '제26회 곤양면민 체육대회'가 지난 11월 3일 곤양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주민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그동안 법 정리 단위로 팀을 구성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권역별로 동부, 중부, 읍내, 서부 등 4개 팀으로 나누고, 경기 종목도 어르신 낚시, 막걸리 마시기, 고무신던지기, 노래자랑 등 어르신들이 참가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진행해 주민과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 냈다.

곤명면 곤명면, 사랑의 고구마 경로당 전달

사천시 곤명면사무소(면장 이정호) 직원들이 손수 가꾼 고구마를 수확해 관내 경로당에 전달했다.

면 사무소 직원들은 지난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20kg들이 50박스를 수확했다.

이날 수확한 고구마는 경로당 25개소, 저소득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 25명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앞서 직원들은 지난 6월 감자 100박스를 수확해 독거노인 및 저소득계층 등 불우이웃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정호 면장은 "어려운 이웃과 지역주민이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작지만 나눔의 큰 소중함을 알게 되어 마음이 뿌듯하다고 전했다.

서포면 사천시 '다문화가족 한마당잔치' 개최

사천시 서포면 봉사회(회장 박경자)에서는 지난 10월 17일 서포면 다평리 소재 다맥어촌마을에서 '다문화가족 한마당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박경자 회장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가족과 이웃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본 행사를 추진하였다"며 "앞으로도 매해 정례적인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날 행사에는 서포면 관내 다문화가족과 지역 어르신, 적십자봉사회 회원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각 나라별 고유음식 만들기, 장기자랑 등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바르게살기 도덕성 회복 강연회' 개최

바르게살기 서포면위원회에서는 통합과 상생의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바르게살기 도덕성 회복 강연회'를 지난 11월 12일 서포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각 읍면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임원진 70여명과 서포면 위원회 회원, 주민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

정만규시장과 최갑현 시의회 의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강연회에는 경상대학교 윤리학과 김대군 교수의 강의로 진행된 가운데 현재 화두인 상생과 통합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동서동 '제200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동서동은 지난 11월 6일 오전 11시부터 서부시장 일원에서 시민안전봉사대원과 공무원 등 17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00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민안전봉사대(대장 김춘옥) 주관으로 열린 이날 캠페인에서 봉사대원과 공무원들은 상가 및 주민들에게 안전사고 및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용 전단지 및 물티슈를 배부하였다.

동서동 관계자는 "화재로부터 귀중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화재예방에 주민 모두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선구동 선구동, 사랑의 농촌 일손돕기 펼쳐

선구동주민센터(동장 이영재)에서는 지난 10월 31일 선구동 조직단체회원 20여명과 직원 8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동면 노천마을 단감농가를 방문하여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단감 수확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방문해 단감수확작업을 돕고 농민들과 담소를 나누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날 회원과 직원들은 향후에도 농촌 일손돕기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산불 예방 홍보 활동 및 각산정화활동 실시

선구동주민센터(동장 이영재)와 선구동통장협의회(회장 탁갑용)에서는 지난 11월 23일 오후 3시부터 선구동 각산 등산로 일원에서 통장, 선구동 직원 23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 예방 캠페인과 산지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산불방지 기간에 맞춰 문화예술회관 주차장과 현대동림아파트 뒤편, 농경지 주변 등의 쓰레기 소각 금지 계도 활동을 실시하여 소각 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또한 산불조심 예방 문구가 적힌 현수막 4매를 게시하고 각산을 방문하는 시민과 등산객에게 홍보 전단을 배부하는 등 산림자원 보호와 보존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동서금동 동서금동 청소년지도위원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전개

동서금동 청소년지도위원(위원장 박영도)을 비롯한 4개 단체는 지난 11월 13일 오전 7시30분부터 동서금동 삼천포공업고등학교 앞에서 학교폭력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사천교육지원청, 사천경찰서와 연계한 이번 캠페인은 사회문제로 심각성을 더해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청소년 및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밝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를 위해 추진되었다.

동서금동 노인회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전개

동서금동 노인회(회장 양한태)는 지난 11월 5일 오전 7시30분부터 경남은행 앞에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경로당 회장 및 총무가 참석한 이번 캠페인은 날이 갈수록 무질서가 급증하면서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등 무질서가 하나의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기초질서부터 지키자는 취지에서 추진되었다.

벌용동 벌용동, '7080 벽화 골목길' 조성

검정 모자에 검정 교복차림으로 가방을 둘러매고 다니던 추억의 골목길인 '벌용동 13통 삼한교회 뒤 골목에서 삼천포고등학교' 구간이 추억이 가득한 벽화로 꾸며져 화재다.

이곳은 과거 70년~80년대 시절 삼천포 중·고등학교와 삼천포 여고에 다니던 학생들과 교사들이 자취 생활을 하며 통학을 하던 곳으로, 많은 이들의 추억이 쌓여 있는 곳이기도 하다.

벌용동 13통장 김진갑씨는 "예전에 학교 다니던 골목길에 그때 그 시절 이야기를 그려 놓으니 어두침침하고 더러운 골목이 오히려 재미있고 깨끗한 골목길이 되어 좋다"며 "앞으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이곳을 7080 골목길로 이름 붙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벌용동 조직단체 단합행사 가져

벌용동체육회(회장 윤태용)와 벌용동 조직단체에서는 지난 11월 3일 전북 익산시 일원에서 벌용동 활동 조직단체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합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시정 및 동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자생 단체 회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회원 상호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열리게 되었다.

벌용동 윤태용 체육회장은 "2012 벌용동민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도움을 주신 조직 단체장님을 비롯한 회원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더욱 발전하는 벌용동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향촌동 향촌동 발전협의회 창립식 가져

향촌동발전협의회(회장 정대환)가 지난달 20일 오후 6시부터 향촌동 주민센터 2층에서 동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식을 가졌다.

향촌동발전협의회는 동민들 스스로 지역발전사업추진, 고질민원 처리, 행정규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주민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진정한 주민자치행정을 실현코자 발족된 순수한 민간차원의 자생단체이다.

이날 행사에는 정만규 시장을 비롯해 최갑현 사천시의회 의장, 차상돈 사천경찰서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향촌동발전협의회 출범을 축하했다.

향촌동자원봉사회 사랑의 집 고쳐주기 가져

향촌동자원봉사회(회장 강희순)에서는 지난 11월 5일부터 6일까지 누수 등으로 지붕개량이 필요한 저소득 세대 2가구를 발굴해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화력발전본부 희망나눔회와 공동으로 지붕개량사업을 실시했다.

이날 향촌동자원봉사회 회원 10여명과 화력발전본부 희망나눔회원 5명은 400여 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마을주민 2가구 주택의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새 지붕으로 개선하는 등 어려운 여건으로 지붕개량을 하지 못하고 있던 주민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남양동 '제6회 남양 열린 한마당 축제' 개최

남양동 주민들의 화합의 장인 '제6회 남양 열림 한마당축제'가 지난 11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임내숲에서 개최됐다.

남양발전장학회(회장 김형갑)와 진주·삼천포농악보존회(회장 김선옥)에서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길놀이를 시작으로 남양 관내 초·중·고 및 대학생 11명에게 630만원의 장학금 수여식과 진주·삼천포 12차 농악시연, 통영오광대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한편 이날 축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떡국과 떡 등의 음식이 무료로 제공되고, 동민 노래자랑과 함께 푸짐한 경품 추첨 등이 마련되었다.

남양동 청소년지도위원회 학교폭력근절캠페인 실시

남양동 청소년지도위원회(회장 박충권)에서는 지난 11월 13일 오전 7시30분부터 남양파출소와 합동으로 학교폭력근절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 날 캠페인은 학교 폭력이 갈수록 급증함에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학교폭력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또 오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캠페인 및 야간 청소년 비행예방활동을 추진한다.

市, 친환경비료 공급 최우수기관 선정

우수농협 용현농협·선도농가 용현면 이장춘씨 수상

사천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협중앙회가 주관한 '2012 전국 친화경비료 공급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친환경 화학비료 점유비율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비율 ▲교육 및 홍보실적 ▲토양검정 시비처방서 발급비율 ▲친환경 비료 보급 노력 등을 평가했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 비료 시상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천시는 모든 평가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시가 이 같은 영예를 차지한 데는 올해 맞춤형비료 정착을 위해 사천지역 특성에 맞는 비종 10종(밑거름 8종, 웃거름 2종)을 개발하고 시비 6억원을 투입해 농지 3,790ha에 성공적으로 공급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맞춤형비료 기준량 준수와 시비관리지도에 만전을 기하였다.

또 유기질비료 공급을 위해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6억원 가량이 증액된 13억 9천만원을 들여 1만6,250톤의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등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시는 농업인실용교육 및 여름철영농교육, 현장 연시회를 통하여 농업인 현장교육과 각 읍·면·동 담당자 및 이장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한편 시상식은 지난 11월 15일 강원도 홍천에서 열리는 친환경비료 연찬회에서 농식품부 장관표창과 시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이 외에도 우수 지역농협 부문에 용현농협이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선도농가로는 용현면 용정마을 이장춘씨가 선정되어 이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표창과 시상금을 받았다.

항공메카 위한 발걸음 '재촉'

시-KAI '항공 산업발전협의회' 구성… 정책공조·인프라 확충 등

사천시가 항공 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 행보에 나섰다. 항공 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한 협의회 구성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부터 항공 산업의 중장기 발전방향 정립과 기술·정책적 지원 등을 위한 '사천시 항공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 하고, '사천시-한국항공우주산업(주) 협약식'을 체결했다.

사천시 항공 산업 발전협의회는 정만규 시장과 한국항공우주산업(주) 김홍경 대표 이사를 공동의장으로 하고, 경남도와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주) 관계자 등 총 11명의 임원으로 구성된다.

운영은 상·하반기 년 2회 정례모임을 갖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차후에 협의 안건이 발생하면 수시로 모임을 갖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만규 시장과 김홍경 대표이사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시책 등을 공조하고, 산업단지 조성 및 항공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협조를 약속했다.

발전협의회의 주요 추진 방향을 보면, 경남도와 시는 항공 산업과 관련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산업단지 및 국가 항공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등 기반시설 구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 한국항공우주산업(주)에서는 항공 산업 발전을 위한 신규사업 수주 및 인프라 수요를 전망하는 등 항공 산업 발전을 위해 시와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시 관계자는 "항공 산업의 사천 집적화를 통한 항공우주도시 사천시의 위상을 확고히 할 것"이라며 "항공분야의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등 향후 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와 공동으로 항공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인 일자리도 '늘고' 방치 자전거도 '처분'

사천시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해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폐 자전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오랜 기간 거리에 방치돼 시민 보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방치자전거 처리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지역자활센터'와 연계, 이곳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을 고용해 자전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된 후에는 자전거 수리 기술을 배워 향후 자전거 수리 센터에 취직하거나 창업하는 등 고용·취업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방치자전거 수거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자전거 관련 정비 자격 취득뿐만 아니라 기술을 습득한 뒤에 창업을 희망할 경우에도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시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재활용된 자전거를 기증하는 등 자전거를 이용한 다양한 사회환원 사업도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된 '방치자전거 처리사업'을 통해 그동안 거리에 방치돼 사천의 이미지를 망가뜨렸던 폐 자전거를 제때 수거할 수 있게 됐다"며 "자전거를 버릴 때에는 사천시 자활센터(☎855-0422)나 시청(☎831-3358)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수거·처리해드리니, 자전거보관대에 고정해 둔 상태로 버려 다른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0월까지 도로에 방치되었던 자전거 48대를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수리를 통해 재활용 된 자전거 7대를 저소득 계층에게 기증 하였다.

사천시, 경남 도로정비 '으뜸'

사천시가 올해 경남도에서 실시한 춘, 추계 도로정비사업 종합평가에서 도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위임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에 대해 도로정비 실태와 위험지구 해소, 유지관리, 안전시설 정비, 예산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채점한 결과를 합산한 결과 사천시가 시부우수상을 차지했다.

특히 사천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도로시설물과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한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한 상시 점검 및 정비 철저로 이용객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2013년도 각종 도로사업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하는 등 도로유지 관리 업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시의 수범사례로 곤명면 정곡리 진양호상에 위치한 금성교의 '금성교 교량난간 보강(인상) 공사'의 시공법이 선정 되었다.

이 교량은 장대교량(약400m)인 반면 교량난간 높이가 낮아 주민이 교량 위를 건널 때 이동차량으로 인한 교량진동, 바람 등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민원이 매년 제기되었다.

시는 교량의 난간형태에 적합하게 보조난간을 자체설계, 주물을 제작하여 난간 높이를 보강시켜, 사업비를 60% 절감시켰으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기준·강도 및 디자인 등에서 충족시켰다는 평이다.

은하어린이집 박부자원장 국무총리 표창 수상

은하어린이집 원장 박부자씨는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12년 전국보육인대회에서 영유아 보육사업 유공자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박부자씨는 1975년 어린이집 교사로 유아교육에 뛰어들어 지금까지 약 37년간의 세월동안 오직 영유아교육과 보육에 관심과 열의를 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남다른 사명감으로 원아들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하여 평생을 바쳐 노력하며 교사와 어린이집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 공이 인정되어 이 날 수상의 영예를 안은 것이다.

은하어린이집은 평가인증으로 원아들에 대한 보육의 품질향상과 어린이 개인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부모의 호응을 얻고 있다.

박부자 원장은 앞으로도 보육현장의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미래의 인재로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벌리 회전교차로 정비사업 조성 박차

사천시에서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오는 12월 경 벌리 6호광장 로터리에 교통섬을 설치해 회전교차로를 준공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초에 착공해 올 연말 준공예정인 벌리 회전교차로 정비사업은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회전교차로 정비사업이란 교차로 내부 중앙에 원형 등의 교통섬을 두고 진입차량이 회전차량에 양보해 주는 원리로 신호교차로 보다 비 신호교차로가 유리한 곳과 접촉사고가 잦은 곳을 선정하여 정비하는 사업이다.

시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함에 따라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을 저속으로 주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 감소 및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차량의 지체시간이 줄어드는 등 교통 관련 불편사항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이에 앞서 지난 9월에는 사천읍 자영고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사업을 완료하여 시행함으로써 운전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벌리 회전교차로 정비사업은 10월초에 착공해 연말에 완료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겨울철엔 꼭!

수도계량기 '동파'를 예방합시다

Rising Sacheon 사천시 수도사업소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사천수도센터

수도계량기 동파(凍破)예방 안내

계량기 보호통(함) 내부로 외부의 찬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내외부 틈새를 밀봉하고, 과거에 계량기가 동파된 적이 있거나 동파가 우려되면 혹한시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놓아 수돗물을 적게 흐르게 하여 받아서 사용하면 대부분 동파는 예방됩니다.

계량기 및 수도관이 얼었을때 조치요령

-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하거나, 미지근한 물부터 점차 따뜻한 물로 녹여야 하며, 처음부터 50℃이상 뜨거운 물을 부으면 계량기 유리가 파손됩니다.
- 계량기가 얼어서 유리가 파손되면 사천수도센터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계량기 동파예방 방법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① 보호통 내부 스티로폴 보온재가 파손된 경우에 헌옷 등을 넣어 비닐로 감싼다.
② 보호통 뚜껑을 찬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넓은 덮개로 덮는다.

▶별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① 보호함 내부 수도관 관통구 틈새를 밀폐한다.
② 보호함 내부를 헌옷 등의 보온재로 채운다.
③ 보호함 외부 테두리 틈새를 밀폐한다.
④ 보호함으로 찬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카바 또는 접착테이프를 붙인다.

계량기 보호통(함) 보온 방법

계량기 동파신고 ☎ 1577-0600

〈우주항공소년 또록이의 항공 이야기-108〉

수직이착륙기(VTOL airplane)

수직이착륙기(VTOL:vertical takeoff and landing airplane)란 이착륙시 활주(滑走)하지 않고 수직으로 이륙, 상승 또는 하강할 수 있는 특수한 추진방식을 가지고 있는 비행기를 말하며, 헬리콥터나 오토자이로처럼 회전 날개를 가진 항공기들을 총칭하고 있다. 수직이착륙기는 비행기와 헬리콥터의 장점을 합친 항공기로서, 헬리콥터처럼 수직 이륙 및 착륙이 가능하면서도 비행기와 같이 빠른 속도와 긴 항속능력을 지니고 있다.

영국에서 개발한 AV-8 해리어기(Harrier)는 세계 최초로 실용된 수직이착륙(VTOL) 전투기의 대명사로 불리우고 있다. 지난 1967년 첫 번째 양산형 해리어 GR.1이 등장한 이후 다양한 개량형이 만들어졌으며,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을 포함하는 여러 나토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다. 해리어기의 속도는 그다지 빠르지 않지만 1982년도 포클랜드 전쟁에서 단 한대도 격추되지 않고 모두 적기를 격추시킨 것으로도 유명하다. 영국은 지난 1969년 해리어 GR.1을 공군에 실전 배치한 이래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 41년간 운용해 왔으며, 지난 2010년 12월 고별비행을 끝으로 해리어기는 퇴역하게 되었다.

V-22 오스프리(Osprey)는 미국의 수직이착륙(VTOL)과 단거리이착륙(STOL:short takeoff and landing) 능력을 가진 V/STOL 수송기이다. 미국의 벨 헬리콥터사와 보잉사가 공동으로 벨 XV-15를 개발 원형으로 하여 전통적인 헬리콥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보다 먼 작전거리와 터보프롭 비행기의 빠른 속도를 가지도록 개발하여 1989년 3월 시제기가 첫 비행을 성공했다. MV-22는 해병대와 육군용, CV-22는 특수작전용, HV-22는 해군용으로 전투 탐색과 함대 병참지원에 운용되고 있다. 약 9t 정도의 화물을 적재하고 수직이착륙이 가능하며, 헬리콥터보다 2배 정도 빠른 약 500~550km/h의 속도로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형 헬리콥터와 소형수송기의 기능을 모두 만족하고 있다. V-22는 높은 다목적성을 인정받아 미 공군과 육군, 해군 해병대에서 모두 채택되어 실전배치가 진행되고 있다.

F-35는 미국의 록히드 마틴에서 개발한 전투/공격기로서 미국 공군, 해군, 해병대와 영국 해군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도록 개발되었된 5세대 스텔스기이다. 미해병대와 영국군을 위해 개발된 F-35B 단거리 이륙/수직착륙기(STOVL)는 미 해병대형, 경항모용으로 불리며, 기존의 해리어처럼 수직이착륙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F-35B는 미해병대와 영국 해군이 쓸 예정이며 AV-8 해리어와

독자의 시

새

용현면 변근철

새 구는 너머에서 듣고 오는 흙냄새
깜찍한 머의, 맑은 눈빛 지닌 채
창공을 저어가는 고운 한마디를 낚춰
무른해 서성거리는 진승을 닮새고파
언젠가 등어두었던 선율을 길게 뿌리고
수많은 허상을 너른 허공에서 퇴살펴
오막살이 지키는 바둑이 향해
등려주는 씁씁이는 소중하여라
낙엽 한 잎잎지라도 꼭 퍽운한 풍빛
조금 전 구한 식품을 소화시켜
건네는 행동을 무엇에다 비하리운
오늘 다하지 못한 일을 내일에다 맡겨와
즉겁게 왕래하는 모습이 선명해,
갑자기 다가올 일을 능숙히 예감하여
후두 둑 비가와도 하얀 눈이 휘날려도
지혜를 모아 새로운 근거지를 마련하고
겪어온 일을 날개에다 엮어
산수를 오르내린 활발한 생명이라

인간의 모자라는 부분만 닮아 갔다

골 목 길

선구동 박교보

개는 빵꾸난 모자를 쓰고 있다
嚴命을 받고 낭작 엎드려
좁처럼 오지 않는 오후를 기다린다
고장 난 슾통을 헉떡거리며
앞발로 땅을 긁으며
둥글게 다듬어진 바닾을 핥고 있다
햇볕은 따뜻하고 골목은 고요했다
개는 자꾸 바닾을 씹었다
순간 정몽이 된 듯
덕컹거리는 모자 속으로 들어가는 개
두 눈은 돌이 된다

겨울 山寺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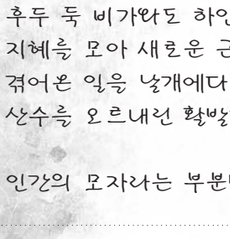
울산시 동구 조승호

낮부터 내리는 안개비가 찬바람에 빙긋이 웃는다
저마다 머소띤 물방울들이 연약한 몸놀림으로
처마 끝 풍경처럼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아이들은 마당 한켠에서 이슬처럼 반짝이다가
모였다 흩어지는 빗물이 되어 사라지고
아쉬운 햇살을 기다리는 빈 가지만 파르르 떤다

곱게 시든 댑쟁이들이 예스런 댑장을 차지하고
속삭이듯 흑러드는 겨울 빛 음악에 취해
사각사각 메마른 꽃대마다 댑백한 노래를 담아낸다

산 너머 묶 건너 가볍게 내려 앉은 겨울 산사에
새들도 첩따라 찾아 온 제 둥지에 들고
저 홀로 정겨운 풍경소리만 뎅그렁
고적한 산 여울을 잔잔하게 흔들고 있다.



이웃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자

새로운 마음다짐으로 새해 첫날을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도 저물어 가고 달력은 12월 달 한 장만 남아 있다. 이때가 되면 대부분 자신의 자리를 찬찬히 되돌아보게 된다.

아쉬움 속에 임진 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우리 곁에 다가 온다.

새해는 이처럼 자기 자신은 물론, 이웃 등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를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다.

올 한해도 인연이 닿았던 이를 가운데 혼자 사는 노인, 소년소녀 가장, 기초생활 수급자, 복지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과 아동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건강한 이웃도 많을 것이다.

최근에는 경기침체 장기화 등의 여파로 겨울방학 때 점심 지원받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는 보듬고 안으며, 온정을 나눠야 할 이웃들이 아직도 많다. 이는 이웃사랑이 일관성 보다 지속적인 생활화, 특정기관 단체에서 사회 전반으로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것과 다름없다.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에서 기억의 책장을 넘기다보면 이웃과 함께하자는 초심(初心)을 실천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도 많을 것이다.

만일 아쉬움이 있다면 함께 나누는 새해에 이웃을 위해서라도 이웃을 위한 초심 실천을 서둘러야 할 때다.

새해 설날에 이웃을 향해 마음 다짐 가운데 하나라도 이웃을 생각하고 추위와 배고픔에 떨며 지내는 내 이웃에 보살핌을 실천하면서 후회라는 마음의 집착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을 내려놓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새해에는 보다 많은 이들이 이웃과 온정을 자비 행(慈悲 行)속에서 뜻 깊은 새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명예시민기자 김을성

얘들아, 마음을 열어봐!

학교 밖에서 아이들을 만나온 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저 자신은 물론 제가 만나는 아이들과 주변을 얼마나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줄곧 내 마음의 중심이 되었던 한 가지는 독서 논술 글쓰기가 아이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지긋지긋한 공부가 아니라 아이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신나고 재미있는 놀이여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조기 교육을 통해 영어를 비롯한 모든 교과학습 능력은 뛰어나지만 의외로 헛똑똑이들이 많습니다. 토론을 두려워하고, 사회문제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가 하면, 자기 생각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저는 독서 논술이 아이들의 어깨를 누르는 또 하나의 짐이 아니라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자신의 삶을 진지하면서도 흥미 있게 가꿔가는 생활의 일부분이라는 걸 느끼게 해 주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책도 골라서 읽어주고, 영혼이 맑아지는 시도 외우게 하고, 아름다운 노래도 같이 배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는 한정된 시간과 강의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수업 내용은 틀에 갇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여러 학년이 섞여 있는가 하면, 또한 자신들의 적성과 특기를 가지고 참여한 아이들도 있지만 전혀 흥미를 못 느끼면서도 오로지 부모님의 욕심에 떠밀려온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이와 수준 등 여러 면에서 큰 차이가 나는 아이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인생에서 저와의 짧은 만남이 어느 순간 사라지는 물거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렵고 힘든 역경이 찾아올 때 희미하게나마 떠올릴 수 있는 입가의 미소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 아닐까 하는 꿈을 이 순간에도 꾸어봅니다.

명예시민기자 장을녀

또 한해를 보내며

2012 임진년 올 한해도 한 달 남짓만을 남겨두고 있다. 참 빨리도 시간이 흘렀다. 흔히들 세월의 속도는 나이에 비례 한다더니 나이를 먹을수록 속속들이 절감하고 있는 중이다.

올해를 돌아다보면 여느 해와 다름없이 보람도 아쉬움도 함께한 한 해였지 싶다. 오랜 도회생활에서의 지친 몸과 마음도 다시 고향에서 평온을 찾았고 늘 소망해왔던 수필작가로의 등단의 꿈도 이루었으며 사천시 명예기자란 직함을 가지게 됨으로써 사천시의 시민으로 뿐만 아니라 명예기자란 또 다른 각도의 시선을 갖게 되었다. 종합운동장 재건축현장의 안전성, 용두공원의 잘못된 시민의식, 지역축제를 참관한 후의 소감, 그리고 2013년 경남도체전유치와 해상케이블카 승인, 삼천포에서 제주 간 여객선 운항 등 크고 작은 우리 사천시의 그 모든 것이 나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부족하나 내시선이 닿는 곳에서 주관적인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기사를 쓰면서 염려와 때론 질책이 따르기도 하며 개선의 여지가 생겨 보다 한걸음 나은 변화라도 있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일 뿐이다.

올해도 그지없이 아쉬움 또한 남는 한해다. 다문화 센터에서의 자원봉사도, 늦게 다시 시작하려던 공부도 핑계 같은 이유들로 내년을 기약하게 되었다. 삶이 늘 계획대로 살아지기야 하겠냐마는 여의치 않은 사정과 게으름을 면박하며 또 한 번 마음을 다그친다.

이제 마지막 한 장을 남겨놓은 달력에는 아직 치러야 할 크고 작은 일들이 남아있다. 무엇보다 며칠 후면 국민 모두가 반드시 참여해야할 대통령선거가 기다린다. 신념과 긍지를 갖고 현명한 판단아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소중한 한 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폭염으로 무더웠던 여름 못지않게 올 겨울마저 맹추위가 예상된다고 한다.

다사다난 했던 한해를 보내면서 미처 끝내지 못했던 일들을 차분히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는 올해보다 더 나은 한해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자. 그리고 그동안 함께했던 이들과 따뜻한 송년 인사를 나누며 작은 손길이라도 필요한 이웃이 없는지 돌아보는 여유와 크리스마스 캐롤 너머로 들리는 구세군의 종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훈훈한 한 해로 갈무리 하자.

명예시민기자 정영희

공중화장실 관리의 필요성

사천 시민이라면 한 번 쯤은 이용해 봤을 공간 터미널. 사천시외버스터미널에 가면 공중화장실이 있다. 머릿속에 화장실을 떠올려 보면 먼저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든다.

얼마 전 터미널 화장실을 이용했다. 화장실 출입문이 없을 때는 화장실 내부가 다 보여서 화장실 가기를 조금 꺼려했는데 문이 생겨서인지 한결 나아졌다. 출입문 안으로 들어서자 몇 칸의 화장실이 있었다.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려고 하자 문이 잠기지 않았다.

혹시나 해서 다른 칸의 화장실 문도 확인해 보았다. 몇 칸의 화장실 문을 밀어보려고 했더니 그럴 필요가 없었다. 미리 문짝을 떼어 놓았는지 떨어졌는지, 문짝이 벽체에 비스듬하게 기대어 있었다.

일주일 후 다시 그곳에 갔다. 상황은 더 심해져 있었다.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는 것은 기본이고, 다섯 칸의 화장실 중 고장 나지 않은 곳이 없었다. 문짝이 떨어지기 직전에 있는 것도 있고, 휴지통은 사용하고 난 휴지가 넘쳐 있고, 변기 물통은 뚜껑 대신 테이프로 칭칭 감아 전체적으로 지저분했다.

문짝이 고장이 났으면 빨리 수리를 하고, 화장실 물이 나오지 않으면 사용하기 전에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문구라도 하나 붙여 놓아야 하는데 배려가 전혀 없었다.

터미널 화장실은 그 지역의 얼굴이나 마찬가지다. 고속도로 휴게소나 각 지역에 있는 터미널 등의 화장실을 이용해 본 사람들이라면 알 것이다. 화장실 관리가 잘 되어 깔끔하고 쾌적한 곳은 좋은 기억으로 오래 남는다. 현재는 화장실 문화의 시대다.

건물 자체의 인테리어에서부터 실내 공간의 활용도에까지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화장실 하면 청결하지 못한 장소로 곳으로 인식 되었던 것이 차츰 편안한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음악이 있고, 악취가 아닌 향기가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아름답게 만드는 운동이 계속해서 이어져 현재도 진행 중이다.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보다 우선 화장실 관리가 필요하다. 화장실은 우리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공간이다. 소중한 공간을 잘 관리하여 모든 이용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으면 한다.

명예시민기자 김경심

갯벌처럼 자연처럼 그렇게…

용현으로 2011년 이사를 왔다. 그 전에는 잘 몰랐던 갯벌을 아이들 데리고 주말이면 찾는 사천만. 송지천 따라 종포갯벌과 대포, 송포로 참 많이도 다녔다.

슬그머니 누군가 붓으로 쓰-윽 그려놓은 듯, 그 길이 밀물이 감춘 듯 하더니 저어기 저렇게 고스란히 옛날옛적 그 길이 오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곳에 사람이 있다. 지는 석양따라 삽 둘러메고 낙지 잡는 우리네 아버지가 있다. 물빠진 갯가로 양동이 호미 들고 터벅터벅 장화신고 바지락 캐러가는 우리네 어머니가 있다.

지금 갯벌은 갈매기, 왜가리, 백로에 가세해 도요새와 물떼새, 그리고 청둥오리까지..

그 중에서 늘 폼생이 일호는 왜가리이다. 어느 때이고 긴 목 치켜들고 뭘 생각하는지, 누굴 기다리는지 고즈넉이 먼 산 보는 양이 괜스레 사람 숙연하게 만든다. 제각기 제 멋에 제 갈 길을 간다.

올해 다녀간 새들이 다시 날아오기도 하고, 어느 곳에서 목숨 다해 죽은 것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연어가 모천회귀본능으로 돌아오듯 그 여행이 수 십 년 수 백 년 수 천 년 흘러왔듯이 날아올 것이다. 그런 동안에 보이지 않는듯 하면서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변해 갈 것이다. 참, 많이 놓치고 살고 있었구나. 사람이 변한게 아니고, 사랑이 변한게 아니라 그게 진실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뒤돌아보면 예전에 이리저리했는데 지금은. 아무튼 지금을 살기보다는 과거의 나만을 바라보았다. 그때의 감성을 부단히 놓치지 않으려고 쓸데없는 아집으로 똘똘 뭉쳐서. 그게 저를 지킬 수 있는 방어벽마냥 스스로를 가두고 살아온 것이다. 보이든 그렇지 않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 당장에 짜-짠하고 바뀌지는 않지만 한 올 한 올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는 것은 어떨까, 갯벌처럼 자연처럼 그렇게 욕심내지 않고…

명예시민기자 김향진

'비상하는 사천의 미래'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능력 있고 창의적인 전문생활인 육성

경남자영고등학교(교장 노명식)

본교는 1952년 개교하여 금년 59회 졸업생을 포함 7,168명의 인재를 배출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지원 농업계 특성화고등학교이다.

학교의 특색으로는 취업과 진학에 대비한 전문교육과정과 야간 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욕구를 충족하고 있으며, 학교기업을 통하여 현장실습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창업 마인드를 함양시키고 있다. 재학 중 1회 이상 일본과 중국, 유럽 현장학습을 실시하여 농업의 세계화에 대비하고 있다. 그리고 경상남도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에서는 도내 전 농업계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농기계와 건설기기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복리후생으로는 3년간의 생활관 입소 및 수업료, 방과후교육비 등이 전액 지원되고, 전교생에게 농촌희망 고교 장학금이 매년 지급되고 있다.

2012학년도에는 교직원 모두가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에 노력한 결과 조경, 축산, 농기계, 식품가공기능사 등 4개 분야 65명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

득하였으며, 굴삭기 등 소형건설기계 조종면허는 81명이 취득하였다.

그리고 제41년차 전국FFK 전진대회에서 은상 1명, 동상 8명이 수상하여 우수고교로서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했으며, 특히 '행정안전부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시험에 1명이 최종 합격하고, 해외인턴십(호주) 대상자로 1명이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농업분야 인재 육성과 함께 진학에도 힘을 기울여 한국농수산대학 외 2년제 대학에 20명, 경상대 외 4년제 대학에 16명이 진학하였다.

경남자영고는 농생명산업을 선도하는 능력 있고 창의적인 전문생활인 육성에 필요한 제반 교육 시설과 인력 및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소중한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전교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학생이 행복한 학교

곤양고등학교(교장 최무경)

사천시 외곽, 하동과의 경계지점인 곤양면에 위치한 본교는 농촌학교의 여러 어려움, 즉 입학자원의 부족과 그 부족에서 비롯되는 여러 문제들을 동시에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위해 여러 가지 효율적인 교육과정(교과교실제, 블록타임제, 뒤처지는 학생 없는 학교, 독서 논술교육, e-Nie 활용 선도학교, 다양한 방과 후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2년 8월에는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더불어 공부하는 재미를 알 수 있도록 '와이즈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학생들로부터 매우 큰 호응을 얻었다.

동시에 학부모님들도 자녀들의 미래 계획에 큰 도움을 얻는 기회가 되었다.

한편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인재교육 차원에서 영어교육활성화를 위해 원어민 초청 강좌를 매주 열고 있으며 그 결과물로 "Gonyang High School Letter"라는 제호로 영자 신문도 발행하게 되었다.

교사들 또한 학교교육과정의 정상화와 끝없는 자기 연찬으로 수업공개를 통해 동료교사의 수업컨설팅을 경청하며 특별히 수석교사를 활용한 신임교사들의 수업컨설팅을 정례화하여 학교교육의 최우선인 수업의 질 향상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마다 연말에는 학생들의 학업외의 다양한 소질을 배양하기 위해 '솥골제'가 개최되는데 이 행사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되고 있다.

지역민의 교육적 열의와 선생님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곤양고등학교는 미래 인재양성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앞으로도 충실히 해 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사천고!!

사천고등학교(교장 강영철)

1. 맞춤형 학력지도(3S프로젝트)

① 수준별 학습

▲Summit(으뜸모둠, 8~10명)=전국 최상위 수준 학습(전국5%이내), SKY, 카이스트, 포스텍, 한·의예과 목표 ▲Standard(버금모둠, 30명)=중상위 수준, in Seoul, 지방 국립대 목표 ▲Smart(기초모둠, 20명)=국·영·수 기초 다지기, 대학 및 우수 전문대 목표

② 우수 신입생 입학전 특별관리 프로그램 운영 ▲학습진단검사 및 전문가 학습클리닉 실시 ▲국어·영어·수학 학습 능력 향상 및 고교 1학년 과정 선행학습 ▲명문대 탐방 및 청소년 리더십 꿈 찾기 프로그램 실시

③ 자기주도학습 역량 키우기(입학사정관전형의 주요 평가요소) ▲진로진학프로그램과 UNIV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맞춤형 상담

2.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사교육의 장점을 공교육에서 실현!

정규수업시간의 국어·영어·수학 과목과 방과후 보충수업을 수준별 모둠학습으로 실시하여 학생 만족도 높은 교육과정 운영, 야간 및 휴일 특강, 교육과학기술부선정 창의경영학교를 통한 토요방과후학교 운영, 경상남도

교육청지정 수학영재학급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3. 재단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비약적인 발전!

사천고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사천고를 졸업했다는 것을, 사천고가 사천지역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다니고 싶은 학교, 보내고 싶은 학교, 근무하고 싶은 학교"로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명문고로 자리매김하는데 필요한 많은 재정을 재단에서 전폭 지원하여 학교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4. 괄목할만한 향상을 보이는 대학 합격 성적!

최근 3년간 서울대 3명, 고려대 4명, 한의과대학, 서강대, 성균관대, 서울교대, 한양대, 한국교원대를 비롯한 수도권 명문대학 36명, 부산대 및 경북대 33명을 비롯한 우수한 진학성적 달성! 눈부신 성장!!

With YOU! Do D.R.E.A.M.!!

삼천포고등학교(교장 정호영)

삼천포고등학교는 전국 20개 고등학교를 선정하는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및 '2012년 대한민국 좋은 학교'로 선정되어 서울과 경주의 박람회에 참가하는 영예를 안았다.

2012학년도 대입전형에서도 서울대 학교를 비롯하여 국립대학교만 80여 명(경북대 7명, 부산대 4명, 한국교원대 1명, 진주교육대 1명, 경상대 40명, 충남대 7명, 창원대 6명 등)이 합격하는 우수한 진학실적을 바탕으로 지역이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비전을 제시하였

다.

이러한 창의·인성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적용되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벤처마킹하기 위해 전국에서 100개교 이상이 해마다 방문하는 명품학교로 자리매김하며 삼천포의 명성을 높이고 있다.

※ 최근 3개년 진학 현황(중복합격자 제외)

2010학년도 (일부분)		2011학년도 (일부분)				2012학년도 (일부분)			
학 교 명	인원	학 교 명	인원	학 교 명	인원	학 교 명	인원	학 교 명	인원
서울대	1	서울대	3	한국외대	2	서울대	1	건국대	2
연세대	1	포항공대	1	중앙대	1	성균관대	1	홍익대	1
서울시립	1	연세대	1	인하대	2	경희대	3	동국대	1
한양대	1	건국대	2	홍익대 등	2	한양대	1	인하대 등	2

2013학년도 특성화고 전환

사천여자고등학교(교장 강범호)

사천여자고등학교는 2013학년도부터 순수 특성화고로 전환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 종합고등학교의 체제로 운영을 하였으나, 교육과학기술부의 '특성화고' 육성 정책에 따라 '금융정보과 1학급', '유통정보과 1학급', '회계정보과 2학급'의 취업중심 '특성화고'로 전환하여 지역사회의 우수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을 반영한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함으로써 학생의 적성과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데 교육목표를 두고 교사와 학생이 혼연일체가 되어 실천하고 있다.

특색사업으로는 종합적인 사고와 기초지식을 익히기 위한 '독서교육'과 직

장인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절을 익히기 위한 '인사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문 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기업사무직, 공무원, 금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식 교육 프로그램인 'BPF공채반'을 운영하고 있다.

본교는 '특성화고'의 기본목표인 '우수 산업인력 양성'과 '선 취업 후 진학' 체제의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사천시 유일의 기숙형 고등학교!

용남고등학교(교장 손강대)

용남고등학교는 정부의 더 좋은 학교 만들기 정책 사업인 기숙형 고등학교로 선정되어 2011학년도부터 정부의 혜택을 받고 있다. 40여년의 전통을 가진 용남고등학교는 최근 서울대 등 명문대학에 많은 학생들이 진학하였다.

기숙형 고등학교로의 새로운 변화와 더불어 중학교 내신 석차 백분율이 평균 30%인 우수한 인재들이 입학하여 면학 열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다.

우수한 인재들의 유입에 발맞추어 용남고는 학생들의 흥미와 능력을 고려하여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첫째, 학력향상 및 맞춤식 능력계발 프로그램인 전교생 영어듣기평가,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의 4개영역 수준별 수업, 학력우수학생 및 희망 학생을 위한 교과중심의 소규모 심화반 야간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대학 입학 목표관리 프로그램인 명문 대학탐방, 자가 진로·진학 진단, 입학사정관제를 위한 포트폴리오 작성, 찾아가는 논술 특강 및 논술 심화 수업, 아침 독서를 실시하고 있다. 셋째, 심신단련 및 건전한 정신 형성 프로그램인 다양한 동아리 운영(교사 1인 1동아리), 내 고장 명산 산행 및 행군을 실시하고 있다. 넷째, 바른 사람됨을 중시하는 인성 프로그램인 사천시 향교 예절교육 및 명사 초청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유관기관과 상생할 수 있는 WIN-WIN 전략 강구를 통한 다양한 장학제

도, 우수고교 및 대학과 학술교류 협약, 글로벌 인재양성 학습체험, 교사들의 능력 함양을 위한 해외 연수 및 시범학교 견학을 통해 글로벌 인재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2011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초현대식 건물인 용남고 기숙사(구담학사)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32실 128명을 수용하며 1실 4명이 입실하게 된다. 주요시설은 독서실, 강의실, 소학습실, 멀티휴게실, 세탁실, 다림질실, 세면장, 샤워장, 탈의실, 사감실, 다용도실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용남고가 기숙형 고등학교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많은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자녀교육을 위해 도시이주나, 도시학교 진학으로 사천의 인재가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면서 사천의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천시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었다.

그러나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혜택과 안전한 학습여건이 마련되면 더 이상 우수학생들이 도시로 유출되는 현상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용남고등학교가 강하고 경쟁력 있는 명품고로 성장하면 사천시도 동반 성장하는 상생관계로 거듭날 것이다.

새로운 시대 리더가 되는 여성인재 육성

삼천포여자고등학교(교장 양태일)

본교는 삼천포 지역의 대표적인 명문사학 여성교육기관으로 1953년 개교한 이래 지금까지 57회, 총 14,91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그들은 지금 사회 각계 각층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교의 교육목표는 실력과 인성이 조화를 이룬, 리더십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편성시 자율학교 편제를 적용하여 학생의 교과선택 범위를 넓혔으며, 수학·과학 중점형 교과교실제를 운영함으로써 교수학습 방법 개선, 다양한 탐구실험, 수준별 이동수업등으로 학생들의 수업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또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독서교육의 활성화로 2012학년도 도서관 활용 우수학교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특히 인근대학 방문 및 진로와 연계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동아리 활동 부서가 많이 개설되어,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밝은 미래를 열어 가고 있다.

본교에서는 교육특색사업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3행 3무' 실천운동, 학생들의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글마루 독서록 쓰기', 전국대회에서 이미 50회나 우승을 하여 명성이 높은 교기인 '농구부 육성'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지·덕·체를 갖춘 조화로운 인간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본교는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일반계 인문고로 전환될 예정이며, 현재 약 8억7천만원 상당의 예산으로 금년도에 교실 리모델링과 교실 선진화 기자재가 새롭게 구축되고 있다.

따라서 쾌적한 교실, 최신기자재를 바탕으로 한 학습환경속에서 '미래사회에 기여할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전교직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창의 인성 융합 기술명장 양성의 요람

삼천포공업고등학교(교장 강수석)

2012년 전국기능경기대회에 '100년 직장 기술보장학교' 삼천포공업고등학교는 9개 직종 14명의 선수가 참가해 두서의 성적을 올렸다.

폴리메카닉스, 금형, CNC선반 등 기계분야에서 3명의 선수가 (은2, 동1) 빛나는 성과로 경남에 최고로 우뚝 서며 기술교육의 메카임을 입증하였다.

① 폴리메카닉스 직종 : 2위

은메달 -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자격 획득

② 금형 직종 : 3위

은메달 - 삼성테크윈 또는 삼성전자 취업 확정

③ CNC선반 직종 : 4위

동메달 - 삼성테크윈 또는 삼성전자 취업 확정

그리고 2012년 6월 10부터 19일까지 삼천포공업고등학교 2, 3학년 20명의 학생들은 마이스터의 근원국 독일과 세계 최고의 금융산업과 초정밀 산업이 발달한 스위스를 방문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직접 보고, 배우고 체험하는 국외 2개국 해외 기술 연수를 다

제47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시상 후 모습.

녀 왔다.

또한 2012년 경남기능경기대회에서 종합 2위(금 6, 은 7, 동 2, 장려 3)의 빛나는 성과로 경남에 우뚝서며 기술교육의 메카임을 입증하였다.

특히, 기계공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폴리메카닉스 1위, 금형제작 1위, CNC선반 1위, CNC밀링 2위로 항공마이스터고로서 위력을 십분 발휘하였다.

또, 조선 산업의 꽃인 용접 2위, 배관 1위, 실내장식 1위, 동력제어 2위 등으로 경남 공업기술교육의 메카학교로서 지역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 내고 있다.

도교육청 지정 창의경영·연구시험학교

삼천포중앙고등학교(교장 정연찬)

2009,2010학년도 삼천포지역 최초의 사교육없는 학교, 2011 교육과학기술부지정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2012년도 경상남도 시범학교로 선정되어 년간 8천여만원을 지원 받아 전교생의 50% 이상의 학생들이 수강하여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비롯한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적화된 시설이 완비된 학습 환경에서 학교장을 중심으로 전교사들의 열성어린 지도가 어우러져 지역의 중심학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보고, 만지며, 깨우치는 재미있는 수학!이라는 슬로건하에 2012년 9월 1일 지역민과 함께하는 수학 체험전 개최을 개최하였다.

두통과 스트레스의 주범인 수학을 쉽고 간편한 교구를 활용한 즐거운 체험으로 관내 초, 중등 학생들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과 흥미를 보였으며, 본교 수학동아리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여 눈높이 체험전이 되도록 운영 하였다.

지역의 중심고등학교로 자리잡기 위한 학생·교사들의 끊임없는 노력은 좋은 교육활동 결과를 낳았다.

사천시 관내 최초 경상남도 과학 경시 대회 금상 수상, 전국 고등부 판소리 대회 대상 수상, 전국 체전 유도 동메달(2체급) 수상, 제6회 전국 거북선 창작 경연대회 대상,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 대회 동상, 중등교원학습지도 연구대회 수상, 우수한 학습 자료 제작 1등급 전국학습자료전 2등급 수상하였다.